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종합지

굿뉴스피플

Good News People



Cover Story 한국 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
'푸른 정치' 꿈꾸는 장홍호 이사장
광주·전남 유권자 정치의식 설문조사
신세대 마케팅 새바람 '일신물산'
3당에 들어본 '혼미정국' 해법

11

2003



축복사진관

사진속 아이들®

디 · 지 · 털 · 사 · 진 · 인 · 화 · 현 · 상 ·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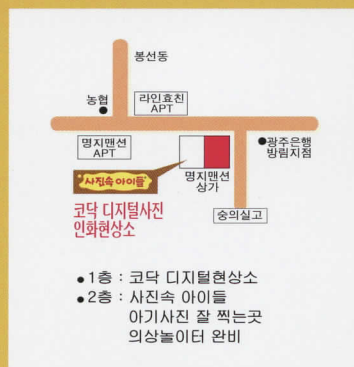
아기사진 잘 찍는 곳

아기사진은 디지털로!

카메라 사진 1R당 인덱스(밀착) 무료증정

증명사진 촬영한 디스켓 무료증정

- 디지털카메라 사진 인화 및 다양확대
- 인터넷 CD, 디스켓, 자동인화기
- 칼라필름으로 다양색상, 흑백
- 필름없이 사진만으로 인화
- APS 신필름 전문 인화
- 슬라이드 인화, CD제작, 사진스캔
- 전송인화
- (외국, 한국→인터넷→바로인화)
- 각종 사이즈 인덱스(밀착)
- 복원, 흠터제거, 이미지 복원



예 약 673-1500, 654-8811

FAX 675-0155

<http://www.potoi.co.kr>(축복사진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5번지
 명지맨션상가 라인호천 삼거리
 동아여고 송의실고 사이

최고의 품질, 가장 신선한 커피

“쉐브아”

향이 살아있는 최고급
라워 카페 (Flower Cafe)' 입니다.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이스크림(옵션)과 함께 가장신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아늑한 공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판매를 촉진해 줄 뿐 아니라, 커피향과
수익상승의 효과가 크다고 조사결과 분석됐습니다.

쉐브아의 가맹점 관리

- 입지조건과 구매계층에 따른 메뉴의 차별화
- 가장 신선한 최적 배송시스템 채택
- 다양한 이벤트와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 홍보
- 가맹점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 본사 코디의 현장지도 및 기계점검, 제품안내
- 매출분석 및 영업지도, 영업권의 추이분석과 대책
- 새로운 메뉴개발과 원가절감 이익을 가맹점에 리턴
- 정기적으로 매장청결, 제품 보관상태 등을 점검, 보완지도.

원두커피의 명품 “카와”

QUAWHA COFFEE는 고유한 향을 지닌 최고급 숯불 배전커피, 에스프레소,
하우스 브랜드 및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콜롬비아 에메랄드, 모카하라 등 다양한
브랜드 커피 또는 최고급 단일품종 커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www.quawha.com

Cover Story



“탁상 여성정책 개선 시급”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

권두시

8

커버스토리

“여성운동 재정보조 총력”

9

정 치

‘푸른정치’ 새로운 도전 장흥호 이사장	14
노대통령 “재신임투표” 왜?	20
시사논평	23
광주·전남 유권자 정치의식 설문	24
지상대담 / 3당에 듣는다	27
신당출현... 정치권 대지진	32
호남대 최인기 총장 특강	36
‘뜨거운 감자’ 이라크 파병	38
지자체장 탐방	41
지방의회 살림꾼 / 이길선 나주시의회 의장	46
우먼파워 / 목포시의회 전금숙 의원	48
우수기초의원상 유순남 의원	50

국 제

중국 유인우주선 시대	52
노벨 문학·평화상 수상자	54

경 제

전국 유통업계 새바람 일신물산	56
중소기업탐방 / 기성마린	64
선진목포농협 오정숙 조합장	66
첨단 기술인 요람 광주인력개발원	68
광주·전남 산업기술박람회 성료	70

굿뉴스피플 만화

目不忍見	71
------	----

화 보

가을운동회	72
-------	----

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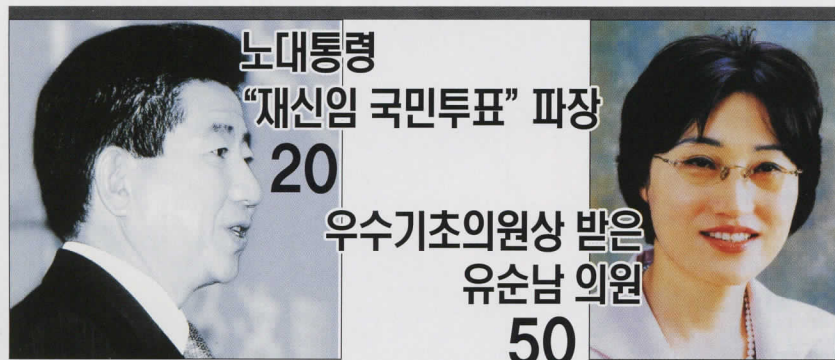
‘학생의 날’ 기획 인터뷰	74
‘소방의날’ 기획	77

특 집

괴질	80
----	----

프리즘

청강의 세상 이야기	87
------------	----



노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파장

20

우수기초의원상 받은
유순남 의원

50



폭준정치 꿈 실현하겠다

장흥호 이사장



56

신세대 마케팅 특허
전국 유통업계 새바람
[주]일신물산

“문서를 못따르는 여성정책 큰 문제 한국 여권 세계 최하위권…부끄러워”

기금 조성이 가장 중요…기부 릴레이 등 안간힘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

대담 = 김 성 환 편집국장
정리 = 방 수 진 차 장

참 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4명의 여성 장관이 탄생했다. 이처럼 여권이 많이 향상됐다고는 하나 ‘호주제 폐지’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여성 장관의 옷차림’이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 차별화 된 시선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태나 여성 가정의 경제력 부재 등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으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기만 하다.

직면해 있는 여성 문제를 우리나라 1세대 여성 운동가인 ‘한국여성재단’의 박영숙 이사장(71)을 만나 여성재단의 역할과 여성 문제 해결책 등을 들어봤다.

박 이사장은 제13대 국회 단 6명의 여성 의원 중의 한 명, 한국 여성운동의 태두(泰斗), 90년대 들어서 꽃피운 사회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현존하는 사회운동 1세대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여성환경연대, 결식아동돕기, 환경·사회·여성 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 한국여성재단 모금 등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생활의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진정 아름다운 여성이란 걸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임을 자연스레 깨달을 수 있었다.



지난 10월 11일 빈소년 합창단 공연 때 연설하는 박영숙 이사장

Interview

한국여성재단 박 영 속 이사장



본지 김성환 편집국장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 이사장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셨는지요?

최근에서야 나이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삶의 페이스를 잃고 약 두 달 정도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지요.

별도로 건강 관리를 위해 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집안일, 집필 등 늘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릎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 외에는 건강에 별 탈은 없습니다.

일산으로 이사하면서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어 종종 걸어나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강산을 다녀오셨는데 감회가 깊은 줄로 생각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북한을 다녀 온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번 여행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이 뜸했던 옛날 친구들과 함께 금강산을 다녀왔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떠나는 날은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가 그치고 청명하고 맑은 날이 계속돼 북게 물든

단풍을 실컷 보고 왔습니다.

제 고향이 평양인데 한번 밖에 못 가봤어요. IPU(Inter-Parliamentary Union : 국제의원연맹)가 열렸을 때 고문 자격으로 방문했는데 그 뒤로는 너무 비싸서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웃음) 16km만 연결되면 30분 정도에 도착할 거리인데 4시간 걸려 고성까지 가서 경계선을 넘는 길도 20분이나 걸리니 갈 때마다 안타까울 뿐이지요. 금강산을 가을에 가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죽어도 한이 없다' 할만큼 감탄사 연발이었지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 구룡폭포의 9개 연못에 담긴 물은 선녀가 다년간 듯 싶었지요. 설악산이 남성적이라면 오밀조밀한 금강산은 여성적인 산이지요.

너무 좋았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하고 싶으십니까?

통일, 될까요? 되겠죠? 아버지 쪽 친척은 모두 월남하셔서 아무도 안 계시는데 어머니 쪽 친척 분들은 아직 평양에 남아 계세

Interview

요.

개인적으로는 어릴 적 같이 놀았던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통제로 인해 미개발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작을 위해 산과 들이 훼손된 정도라고 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자본이 흘러들어가 개발을 한다는 목적으로 환경이 파괴될 것이 불 보듯 훤히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잘 보존된 자연이 훼손될 것이 가장 우려됩니다.

세계적으로 산업화 추세에 이어 이제는 환경 친화적 산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환경 친화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할 생각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언제 발족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1999년 새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여성 운동을 하는 여성 원로들은 '후진들에게 해줘야 할 일이 무엇일까'로 고민했어요. 여성 운동을 하는 단체가 전국에 약 400여 개 되는데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재정이었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민간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지요. 그 당시 여성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동참하고, 여성계 파벌을 가리지 않고 130여 개 여성 단체가 모여 공개 토론회를 거치고 영국의 기부 문화 시찰을 다녀 온 뒤 제가 대표를 맡아 발족되었지요.

한나라당 의원, 민주당 의원도 참여하는 등 125개 단체가 모인 유일한 최초의 여성 단체가 탄생한 것이지요. 설립 당시에는 여성부가 없어서 '법인체' 인가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법인' 인가 후 저는 소심한 마음에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하자고 건의했으나 회의를 거쳐 1천억원을 목표로 정했어요. 이 목표액은 여성운동을 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재단이 발족한지 4년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성장했으며 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다고 평가하십니까?

1천억원을 목표로 정하자 놀라움을 포함과 동시에 여성들도 컸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냈지요. 반면에 재단 활동을 하다보니 한국 사람들은 불우이웃을 돕는 데는 관대한데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가나 소외된 여성을 돕는다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지금까지 약 70억원 정도를 모금했어요. 10% 미만의 목표 달성이지만 공익 기부문화를 정착시켰다는 의미에서는 50% 정도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재단이 지금까지의 활동과 앞으로 활동 방향은 무엇인지.

목표 달성에는 도달하지 못 했지만 기금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 공모를 받아 공고 후 선정해 필요한 단체에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성 평등 사회 조성 사업, 성 매매 피해 여성 지원 사업, 여성 실업자 재취업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단이라고 하면 모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익성과 함께 투명성을 고려해 배분하는 것이 모금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여성 운동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짧은 여행, 긴 호흡'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월 60만원이라는 활동비로 생활을 하기에 부족한데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보생명에서 1억원을 지원해주셔서 재단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지원하면서 재단의 모금액은 여성단체 활동에 더욱 많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재단이 기업체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Interview



교보생명이 한국여성재단에 외국인 여성노동자 교육사업에 써 달라며 2천만원을 기탁했다

기금 조성사업, 해외 연대 홍보 활동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지역 네트워크 활동과 해외 연대 홍보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기업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니다. 여성 한사람이 1만원씩을 기부하게 되면 1천만 명이면 1천억원이 모여질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시작되었지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13개 지역의 여성 단체가 활약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 여성단체가 재정이 열악해 어려움이 많습니니다. 기금을 모으는 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유일하게 3천만원 정도를 모금해 저희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6월에 100인 기부 릴레이 행사 때에도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목표를 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기부문화를 활성화해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최근 호주제 폐지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성계 최대 관심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회에서 활동할 당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분야가 가족법 개정과 함께 호주제 폐지 문제였습니다. 가족법 개정을 위해 투쟁한 결과 37년 만에 개정되었고 호주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결렬되었지요. 제가 국회에 있을 동안 평민당 의원 전원 동의를 얻어 서명을 받아냈으나 결국 호주제 문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우리나라 풍속과 사대부 원

로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쉽게 타결될 문제는 아니나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기에 폐지되지 못하면 또 오랜 시간이 흘러야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여성정책은 만족하십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내세우는 공약 중 하나가 여성의 인권 향상 문제입니다.

문서상의 정책대로만 된다면 불만이 있을 수 없지요. 다만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불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정책 추진 의지가 문서상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각 위원회의 30%를 여성으로 발탁한다고 했으나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성의 정치 진출도 여권 신장의 한 방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적인 큰 행사나 회의에 참가하면 부끄럽습니다. 여성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의 사회 참여 수준은 여전히 세계 102개 국 중 83위, 여성의 권한 척도는 64개 국 중 6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여성 고용을 50% 수준으로 높이며 5급 이상 고급 인사 창출을 하겠다는 정책은 흐지부지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들의 투표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의 정치권 참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위해서 정부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여성들의 정치권 진출이 곧 여권 신장의 한 방식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여성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미래 여성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산업계의 요구 사항을 보더라도 여성의 힘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힘이 필요하다고만 외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주도 해녀의 지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해녀 집단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도 덕망을 쌓아야만 가능한

Interview

일이고, 지도자는 스스로 판단하여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세워 실천했다고 합니다. 해녀들의 생활 방식이 바로 여성 운동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녀들의 '남녀 공동 참여법'이나 '정치 참여 행사' 까지 현대의 여성 운동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여성 인권 향상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여성 자질을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나라가 여러모로 혼란스럽습니다. 진단과 처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라는 경고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여 정부가 회피할 수 없는 위기는 개혁적이기는 하나 포용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해결 가능한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라도 과거와 단절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의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 대통령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빛이 없는 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가능성을 십분 발휘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이사장님의 삶의 철학은 무엇인지요.

생활 신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제게 "목표 지향적이고 집요했다라면 다른 박영숙이 되었을 텐데"라고 저의 단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지적했듯이 전 목표를 정하고 일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옆에서 맡겨준 임무에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스스로 평가할 때 부끄럽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누가 되지 않는 박영숙이 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철학이라면 철학이겠지요.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95주기 3·8 세계 여성의날 '제19회 한국여성대회' 반전 평화 거리 행진

먹성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딱히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음식을 좋아합니다. 고급 음식을 대접받고 오면 꼭 집에서 다시 음식을 먹어야 개운한 걸 보면 말입니다.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와 나물을 좋아합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남편 안병무(전 한신대 교수) 박사와는 7년 전에 사별했고 지금은 아들 부부, 손녀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NP**

약력

- 1963. 2 YWCA연합회 총무
- 1970. 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 1987. 11 평민당 부총재(총재 권한대행)
- 1988. 4 13대 국회의원(보건사회위원회)
- 1991. 4 제85차 국제의원연맹 한국대표단 고문(평양)
- 1992. 4 유엔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 1992. 7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 1995. 11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 1998. 8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총재
- 1999. 12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정치는 국민을 편안케 하는 것”

17년동안 서구민과 애환 함께한 ‘서구토박이’
민주당 정통 이어갈 젊고 푸른 정치인 표방

참여정치연구소 장홍호 이사장

대담 = 김 성 환 편집국장
정리 = 박 상 철 기 자

대 다수 국민들이 최근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는다.

그 한숨 짓는 만큼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선거때만 되면 국민들 사이에 대두되던 ‘젊은 피 수혈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젊은 피’란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정치신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진정한 의미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행태나 당파적 모습을 버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정치적 이기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바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와 사회를 바라보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며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를 위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협력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많은 색깔 가운데 푸른색은 일반적으로 젊음과 희망, 평화와 비폭력을 상징한다.

이런 관점에서 ‘푸른 정치인’을 표방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젊음이 있어 만났다.

바로 민주화의 고장이자 정치1번지 광주에 영원한 서구 주민임을 자처하는 참여정치연구소 장홍호(44) 이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